

한국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 2002년-2014년 사회과학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Trends in the Study of South Korea's Local Festivals

: An Analysis of Articles in Social Science, 2002~2014

김미현* · 정명은** · 태지호*** · 정현주****

Kim, Mi Hyeon · Jeong, Myung Eun · Tae, Ji-Ho · Jung, Heon Joo

■ 목 차 ■

- I. 서론
- II. 한국 지역축제의 의미와 학문적 접근
- III. 조사설계
- IV. 연구경향성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지역축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해석과 학문적 접근의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축제를 연구한 25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학문적 관심의 양적 성장,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한 관점과 분석수준, 방법론적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10년까지는 현황분석 중심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후에는 처방 중심의 연구가 다수 등장하여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학문적 균형이 나타났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지역축제가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지적한 바와 달리,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두 가지 의의를 균형있게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전형적인 연구설계 전략은 특정 1-2개 지역축제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것이었다. 향후에는 분석수준 및 방법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 Plus 사업단 연구교수(교신저자)

***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동저자)

논문 접수일: 2015. 5. 11, 심사기간(1, 2차): 2015. 5. 11~2015. 6. 15, 게재확정일: 2015. 6. 15

론의 다각화, 융합학문적 접근, 실패사례를 통한 학습 등을 수행하여 한국 지역축제의 발전을 추동하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지역축제, 향토축제, 연구경향, 경향분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the study of South Korea's local festivals and suggests diversification of the ways in which local festivals are interpreted and studied academically.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252 articles publishe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between 2002 and 2014, focusing on an overall research pattern, various roles of local festivals, levels of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st prevalent purpose of research up until 2010 is to analyze local festivals per se while many works published thereafter stress policy recommendations, showing both diagnosis and prescription with regard to local festivals are presented. Second, unlike previous works on trends in the study of local festivals that find most works emphasize their economic functions, this article finds that papers in social science overall stress both economic value-creation and social meaning-formation of local festivals in well-balanced ways. Third, it also finds that a typical article published in social science employs a survey method to examin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one or two local festivals. It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needs to diversify levels of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 adopt inter-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nd learn from failed cases, which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local festivals.

□ Keywords: local festival, regional festival, research trend, trend analysis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 지역축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해석과 학문적 접근의 다각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축제의 기원은 공동체의 결속과 안녕을 염원하는 제의에서 시작되었다. 원시시대의 부족장을 중심으로 한 사냥 전·후 의식에서부터 농경사회의 기우제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부족단위부터 마을, 국가 단위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와 안녕을 기리는 것이었다. 수천 년을 거쳐 현재의 지역축제는 세계 공동체의 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동네 소규모 예술제, 지역특산물 축제, 국제영화제 등은 공동체의 개념과 영역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축제가 근본적으로 지니는 ‘지역(장소) 중심적,’¹⁾ ‘공동의 경험’이라는 속성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소재로 재해석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 지역축제 현황 자료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근거하면 1950년대에 처음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축제는 8개로 집계된다. 1960년대에는 36개, 1970년대에는 39개의 축제가 새로 등장하였으나 한 번 개최된 지역축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970년대까지 최소 83개의 지역축제가 존재했던 것이다²⁾. 1980년대에는 연평균 9.3개의 지역축제가 증설되었다. 지역축제는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90년부터 5년간 신규 개설된 지역축제가 85개였고 민선단체장 1기가 시작되는 1995년부터 이후 5년간에는 그 숫자가 314개로 폭증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연평균 63개의 지역축제가 신규 개설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지역 마케팅을 통한 자생적 경쟁력 향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하였다. 2005년부터는 지역 전통 민속축제 특성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2004년에는 신규 개최된 지역축제가 487개, 2005년-2009년에는 489개로, 2000년대에는 연평균 약 97개의 지역축제가 개설됨으로서 지역축제가 범람하게 되었다. 지역축제는 2008년 들어 양적 팽창의 정점을 찍은 이후(926개) 2009년부터 거시경제 침체, 지역축제의 양적 팽창에 못 미치는 질적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중앙정부의 권고, 사회적 비난, 지방정부의 자발적 감축으로 지역축제는 통폐합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개최된 지역축제는 555개로 집계되었다.

사회현상의 변화와 학문적 관심은 상호작용한다. 지역축제의 발전은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다시 지역축제의 발전을 고무하고 격려한다. 지역축제의 기원과 현재적 의미 혹은 기능에 대하여 학문적 관찰의 방법과 시각은 어떠하였는가? 지역축제에 관한 학문적 접근은 관광학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시적 분석에 그치며, 경영/경제학 분야의 경우 서비스 및 마케팅 중심, 민속학 분야의 경우 전통축제 중심 등 분과학문별로 연구의 초점이 편향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되었다(이훈·김미정, 2011: 482).

1) 1990년대 초까지는 ‘향토축제’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였으나 1996년 이후 ‘지역축제’로 상용화 되었다(김채현, 2006).

2) 197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축제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관제축제로서 ‘국풍81’, 향토축제, 올림픽 등 국가적 차원의 축제 양성기였다고 평가된다(이훈·김미정, 2011: 485-49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기원에서 파생된 현재적 기능을 살펴보고 학술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이 한국 지역축제의 발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동하는지 가능하여 학문적 접근과 방법론의 편향성을 극복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축제 연구경향성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서 검색되는 사회과학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252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역축제의 의미와 해석, 지역축제의 양적 성장과 학문적 관심의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본다. 둘째, 조사설계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 논문과 연구대상 학문 분과 그리고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기준과 코딩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셋째, 분석결과는 분과학문별 지역축제 분석수준과 분석방법, 지역축제의 고유 기능을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 사회적 의미형성 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였던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에 더하여 사회적 의미형성 기능이 지역축제 연구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축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지역축제의 의미와 학문적 접근

1. 지역축제의 의미와 해석: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

축제의 기원은 공동체의 결속과 안정을 염원하는 제의에서 출발하였다. 종교적 제례의 개념과 놀이적 개념을 내포하며 원시적 신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통합성을 이루는 것이었다(김현욱, 2014: 173). 전통 시대의 기복적인 성격을 지닌 축제는 현재에 와서 세속적이고 유희적 속성을 지닌 재화로서의 축제로 변하게 된다. 현재 많은 지역축제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특별한 유희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의 동기에서부터 산출물 공유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기에 일정 범위의 지역 내에서 어떠한 유형 자원과 무형의 염원을 담는가에 따라 축제가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축제는 '지역(장소) 중심적'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축제에 대한 접근을 정리하면 축제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축제의 경제적 기능은 '생산'과 '소비'를 통한 '상품화'로 설명된다. 재화로서 현대 축제는 지역의 문화산업 상품이자

자원으로 그 효용성을 가진다. 문화콘텐츠의 대두라는 최근의 새로운 문화의 생산 및 소비 시스템 속에서 축제 또한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경험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축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그에 따른 상품 경제적 메커니즘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사회는 참여 인력의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을 꾀하기도 하며 다양한 시설의 운영 및 파생 상품 판매 등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지역축제의 지속적 개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 구축에도 일조하여 지역 전체의 상품화로 발전된다. 지역 축제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재화임과 동시에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해당 지역 내의 자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들은 축제 그 자체를 통해 지역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와 외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축제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재방문의사 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축제의 경제적 기능에 입각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지역축제의 양적 증대와 차별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일률적인 생산과 소비 행태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축제라는 상품이 소비되려면 타 지역과 구분되는 해당 지역만의 고유성도 갖춰져야 하지만 동시에 대중에 흡수될 수 있는 수준의 보편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생산 및 재가공되는 지역자원도 지역 고유성을 띄어야 하는데 지역구조적 환경상 인근 지역 간에는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지역축제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축제의 복잡화를 일반적 현상으로 만들었다. 축제의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 축제들이 비슷한 형태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와 참여자들의 인식 또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그 자원을 '외부에 판매한다'는 관점은 축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 외부적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차별성, 지역 외부인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에 더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축제 요소 및 발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관광 브랜드화 및 브랜드 자산가치(장서연·김영국, 2014; 신동식, 2013; 류시영·김효경, 2012; 신형식·전영주, 2012; 전대회·김창수, 2010), 서비스 품질 및 지각된 가치(신현식, 2014), 서브컬(김현욱, 2014; 박건실, 2004; 이환범, 2002), 지역축제에서의 쇼핑 및 편의시설(이재달·류정섭, 2014), 관광정보 품질(유예경·정승환, 2013), 방문객 성향 및 소비지출(김창수·김형빈, 2014; 이승길·김현, 2006)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축제의 사회적 의미는 '개인'과 '집단'의 기억의 재현, 경험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화'로 설명된다. 종합예술로서의 축제를 통해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토대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남덕현, 2004).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제의를 통해 개인과 가족, 집단의 안녕을 기

원하였다. 개인적인 염원뿐만 아니라 집단이 다같이 모여 일정한 의식을 치루고 소망하는 바와 즐거움을 공유하였다. 의식을 통해 음식을 나누고 정서를 공감하며 유대감을 쌓았다. 한 시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집합적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수되면서 기억의 재해석과 재생산으로 발전하였다. 지역축제는 당대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구성한 이야기(story), 의미(meaning)가 표현된 기호인 것이다. 축제는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문화적 정체성 등 지역주민과 집단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다.³⁾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는지가 축제에서 드러나며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화는 지역 내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지역 외부인들과의 소통의 기호로 역할을 수행한다(최정윤·이결재, 2014: 98-100).

기호학적 접근이나 민속학에서는 축제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언어로 표현하며 문화적 수단(춤, 노래, 의식 등)으로 전수되어 왔는지를 관찰한다. 이에 더하여 지역축제의 참여행위자와 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무형자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도 나타난다. '무엇을'에 더하여 '누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한국 축제 변화상을 볼 때 부여, 고구려 등 고대사회 제천의식은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의 곳이며, 여기에는 국가, 부족, 개인 등이 주요 참여행위자였다. 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등회 등 국가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동제, 강릉단오제 등 마을주민으로 축제가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 축제사 단절의 시기를 겪은 이후 1960-80년대 국가에 의한 민속축제 부활, 시군구의 날 지정, 국풍81 운동 등 정부주도의 문화정책이 등장하였다(이훈·김미정, 2011).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해 지역단위의 축제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축제의 주요 행위자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 내 각종 기관 등으로 분화됨에 따라 행위자 집단의 네트워크화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향수자가 지역 주민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공동체 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보령머드축제 등은 외국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경북 의성군은 연날리기를 국제화하여 세계연축제를 개최하였고, 경기 안성시는 남사당 배우덕이 축제를 발전시켜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와 함께 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지역축제는 세계 공동체의 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사회적 기능에 보다 더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축제 요소 및 발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애착도(김진완, 2014; 이훈, 2005), 기호학 측면에서의 의미전달과 스토리텔링(최정윤·이결재, 2014; 신현식, 2014; 전명숙·김근중, 2010), 참여집단 및 거버넌스(황화석, 2014; 황설화·이영미·이병량, 2014; 김성태, 2014; 최영준·박대환, 2008),

3) 최근 현대적 생활상을 반영하여 등장한 이색적인 지역축제로는 반려동물축제(천안시), 평생학습축제(광명시, 경산시, 대구동구 등)가 있다.

신뢰·참여·네트워크·규범·공동체의식 등 사회자본(박혜영·김정주, 2012), 지방정부와 시민의 관계(지용승·홍준현, 2014) 등이 연구되었다.

2. 한국 지역축제의 발전과 학문적 접근

지역축제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역축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국 지역축제 연구경향성 분석에 앞서 200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 지역축제 현황 자료로부터 추출한 데이터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시기에 신규 개최하였다고 한 축제 건수는 다음 <표 1>과 같다⁴⁾. 1950년대에는 8개의 지역축제가 신규 개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의 향토민속축제가 부활하여 매년 9.3개의 지역축제가 신설되었다.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1990년대부터는 지역축제가 폭증하였는데 5년 단위로 보면 2000년대 들어서는 약 2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신규 개설한 지역축제가 매년 97개 이상이였다. 이후 2009년 즈음하여 지역축제의 관리적 효율성과 경제적 위기 등이 지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권고와 지방정부의 반성으로 인해 지역축제의 통폐합이 나타났다. 그 결과 최근 5년간은 연평균 약 50개의 지역축제가 감소하였다.

<표 1> 한국 지역축제의 시기별 신규 개최 건수

연도 구분	신규 개최 건수	연평균 신규 개최 건수
1950년대	8	0.8
1960년대	36	3.6
1970년대	39	3.9
1980년대	93	9.3
1990년~1994년	85	17

4) 본 연구에서의 집계는 황종규·엄홍석·이명숙(2005)의 연구에서 『한국의 지역축제(2004)』를 바탕으로 집계한 수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지역축제의 시기별 양적 발전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50년대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지역축제가 10개 축제, 60년대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축제가 33개 축제, 70년대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지역축제가 39개 축제, 80년대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지역축제가 123개 축제, 90년대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지역축제가 200개축제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지역축제 증가율보다 이후의 지역축제 증가율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개최되어온 지역 축제 수의 50~60%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4년 1월 현재 전국의 지역축제 개최현황은 서울특별시 32개, 부산광역시 44개, 대구광역시 13개, 인천광역시 11개, 광주광역시 15개, 대전광역시 8개, 울산광역시 9개, 경기도 59개, 강원도 74개, 충청북도 35개, 충청남도 41개, 전라북도 32개, 전라남도 41개, 경상북도 52개, 경상남도 68개, 제주도 15개로 총 549개에 달하고 있다(황종규·엄홍석·이명숙, 2005: 314).”

연도 구분	신규 개최 건수	연평균 신규 개최 건수
1995년~1999년	314	62.8
2000년~2004년	487	97.4
2005년~2009년	489	97.8
2010년~2014년	-256	-51.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6년~2014년 지역축제 현황 발표 자료

한국 지역축제를 통시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이훈·김미정(2011)의 논문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한국 축제사를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표 2>과 같이 구분하였다. 양적 증가와 질적 분화, 발전에 영향을 준 주요 계기와 정부 정책 등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연구이다.

<표 2> 한국 축제의 흐름과 변화(근현대 중심)

연도	주요테마	주요사건	비고
1960년대~70년대 중반	전통문화 복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시·군·구의 날, 지역축제예산지원 시작	3,4공화국
1970년대 후반~80년대	지방문화 중흥	대동제와 국풍81, 향토축제, 메가이벤트	5,6공화국
1990년대~2000년대 중반	양적 성장기	문화관광축제 제도, 2002월드컵	지방자치제도 실시
2000년대 후반~	질적 성장의 고민	축제 구조조정, 축제 지속가능 발전문제	

출처: 이훈·김미정(2011), 497쪽, 표3

수 백 개의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은 지역축제는 보령머드축제이다. 보령머드축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총 4회 선정되었으며 12편의 학술논문에서 분석대상이 되었다. 뒤이어 함평 나비대축제가 11편, 무주 반딧불 축제가 9편의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두 축제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총 7회, 9회 선정되었을 정도로 명성이 높은 축제이다. 보령머드축제를 연구한 논문 중 다수는 보령머드축제의 어떠한 특징이 축제 참여 및 축제 만족도, 축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조선배·진재수·현성협, 2012; 송학준·최영준·이충기, 2011; 전대회·김창수, 2010), 함평나비대축제의 경우에는 축제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조승현, 2013), 축제 만족도에 대한 연구(채예병·공윤주·김형식, 2011), 축제 마케팅 및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김현호·조순철, 2004) 등이 수행되었다. 무주반딧불축제의 경우 축제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고(김창수·전대회, 2007), 축제 만족도와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한 연구(이정록, 2011) 등이 연구되었다.

한편, 한국 지역축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한 논문은 다수 있었으나 학문적 접근이 지역축제의 발전을 어떻게 추동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소영(2003)의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1년에 발표된 국내외 관광학 학술지 논문 117편을 대상으로 하여 축제의 지역이미지에 대한 영향을 내용분석하였다. 연구영역, 축제효과, 연구대상 축제, 지역이미지 효과 언급의 정도, 조사방법론을 조사하였다. 지역축제의 효과는 주로 관광 및 상업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며 국내논문은 연구시기에 근접한 최근 축제 연구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국외논문은 대규모 축제를 주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보다는 선언적이고 총론적 수준의 논문이 다수를 이룬다고 지적되었다.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에 국내 관광학분야 13개 학술지에 실린 162편의 축제 이벤트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약 24%의 논문이 문화적 접근에 그치고 마케팅 관점이 부족하였으며 양적통계분석이 50%이상인데 가설설정을 수행한 경우는 약 15%에 그치며 대부분의 설문자료 수집이 횡단면 비확률 표본추출로 수행되었으며 ANOVA, T-test,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경향을 살펴본 이상의 연구들은 지역축제라는 연구대상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는가는 맥락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축제 연구경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분과학문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축제 연구에 대한 학문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한국 지역축제의 양적 성장과 학문적 관심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패턴을 형성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지역축제에 대한 해석과 지역축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형성 기능이 지역축제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어떻게 연구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과학문에서의 지역축제 연구경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행정학/정책학에 주는 함의와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조사설계

1. 자료 수집 방법

지역축제 연구경향성 분석을 위해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등을 DB화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였다. KCI 웹사이트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기준 및 코드를 사용하여 각 학문분과별로 연구경향성을 살펴보기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검색 일자는 2015년 2월 24일이며 논문 검색 범위는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에 ‘지역 축제’ 또는 ‘지방 축제’가 포함된 논문 중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제한하였다. 검색결과,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02년이었으며 2014년까지 총 273개의 논문이 추출되었다⁶⁾. 다음으로, 정치학·행정학·영상매체학 등 각 사회과학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네 명이 273개 논문의 제목과 국문초록을 보고 지역축제 연구라고 볼 수 있는지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논문 저자가 키워드로 ‘지역 축제’를 제시하거나 논문 초록, 논문 제목 등에서 ‘지역 축제’의 키워드의 검색 범위로 추출된 논문이더라도 “신명나는 일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춘천마임축제 자원봉사자의 사례를 통해 본 신명감정 관리모형 탐색(윤태일·정연구·송현주, 2012)”,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김창규, 2014)” 등 그 내용이 지역 축제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축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적합한 논문은 총 252개로 선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분과별 논문 수는 <표 3>과 같다.

5) KCI 이외에도 학술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 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등-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2002년 이전의 논문들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학술대회발표논문, 잡지기사,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재지만을 따로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연구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세부분과학문에 대한 정보 역시 KCI에서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KCI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6) 물론 2002년 이전에도 행정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지역축제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이전의 지역축제 관련 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성 분석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부소영 2003, 홍성화·최병길·이성은, 2006)에서 본 연구는 2002년 이후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14년 지역축제로 검색된 논문의 경우 인문학 116편, 자연과학 20편, 공학 12편, 의약학 1편, 농수해양 16편, 예술체육 89편, 복합학 45편이었으며, 사회과학(435편)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과학의 각 학문 분과를 세분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의 기준을 활용하여 행정/정책(행정학, 행정사, 도시/지방행정, 정책학, 정치외교학), 관광(관광학, 관광사업/레저사업, 기타관광학, 호텔/외식산업경영), 경영/경제(경영학, 경제학, 농업경제학, 산업/서비스경제), 무역(무역학, 무역학 일반), 사회학/신문방송학, 지리(지리학, 기타지리학, 지역개발, 지역학), 교육, 사회과학(사회과학, 기타사회과학, 기타사회과학 일반) 등 총 8가지의 학문분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3> 학문분야별 분석대상 논문

연도	행정/정책	관광	경영/경제	무역	사회학/신문방송	지리	교육	사회과학	합계
2002	1	1	0	0	0	0	0	0	2
2003	0	1	0	0	0	2	0	0	3
2004	3	1	1	0	0	4	0	0	9
2005	3	3	1	0	0	2	0	1	10
2006	2	5	3	0	1	3	0	0	14
2007	3	9	6	0	1	4	1	0	24
2008	0	11	3	0	0	2	1	0	17
2009	2	8	2	0	2	5	0	0	19
2010	2	17	9	1	0	5	0	0	34
2011	9	17	5	0	0	4	1	0	36
2012	3	19	3	0	0	3	1	1	30
2013	4	14	3	2	0	4	0	0	27
2014	4	16	3	0	0	2	0	2	27
합계	36	122	39	3	4	40	4	4	252

2. 자료 분석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 경향성을 분석한 논문은 다음으로 대표된다. 부소영(2003)의 연구에서는 연구영역, 주요한 축제효과, 연구대상 축제, 지역이미지 효과 언급의 정도, 조사방법론을 조사하였으며,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접근방법, 세부 연구주제, 사례연구 여부 등 연구경향 관련 특징과 통계분석 방법, 표본 추출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등 분석 관련 특징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류준호·윤승금·이영주(2010)의 연구에서는 축제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의 연구경향성을 분석하였는데 연구분야, 목적, 방법론을 분류 기준으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축제 연구의 메타분석 기준을 준용하고 보완하여, 연구 목적, 축제 의의, 분석수준, 분과학문, 조사방법,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등으로 분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첫째, 사회과학분야의 학술논문은 학문적 의의 외에 사회적 기여 역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역축제 연구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메타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역축제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축제 분석 중심, 정책적 제언, 활성화방안/발전방안/마케팅전략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축제의 의의가 학문연구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축제 의의’를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코딩하기로 한다. 셋째, 축제 연구의 분석 수준은 축제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넷째, 축제 연구가 사회과학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지만 각 세부 학문 내에서도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이 다르고, 분과학문 간 경향성을 파악하여 융합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광, 사회과학, 지리, 행정/정책, 무역, 경영/경제, 사회학/신문방송, 교육 등 여덟 가지의 분과학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분과학문을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분과학문 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볼 수 없었던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다섯째, 축제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은 기존의 메타분석을 준용하여 크게 이론 중심의 연구, 문헌연구, 사례 위주의 질적 연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하는 실증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비교연구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여섯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하여(목진휴·박순애, 2002; 최영출·박수정, 2011; 이승철, 2013; 김미현·최현덕·정명은, 2015), 이를 통해 각 학문 분과별 특징, 연도별 특징 변화 등의 연구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축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역시 기존의 메타분석을 참조하여, 축제 참가자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객관적 통계자료, 직접 관찰방법, 신문이나 보고서 등 기존 문헌 등 다섯 가지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축제 메타분석에서는 분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을 공무원, 주민, 방문객, 전문가, NGO, 기타 등 여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기준에 따른 하위 분석항목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지역축제 연구경향 분석기준

분석기준	분석항목
연구목적	분석중심, 정책제언, 활성화방안/발전방안/마케팅전략
축제의의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
분석수준	집단/사회/지역, 개인/참가자/지역주민
분과학문	관광, 사회과학, 지리, 행정/정책, 무역, 경영/경제, 사회학/신문방송, 교육
조사방법	이론연구, 문헌연구(비실증), 사례연구(질적), 실증연구(양적), 혼합(양질), 비교방법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자료, 관찰, 기존문헌(신문, 보고서 등)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공무원, 주민, 방문객, 전문가, NGO, 기타

구체적인 코딩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각 분석항목에 따른 지역축제 연구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네 명의 코더가 분석 대상 논문 총 252편 중 무작위로 50개의 샘플 논문을 추출하여 논문 초록 및 본문을 살펴보고 분석항목에 따라 함께 코딩하여 코딩 기준의 일관성을 숙지하였다. 이후 1인당 약 70편의 논문을 할당하여 개별적으로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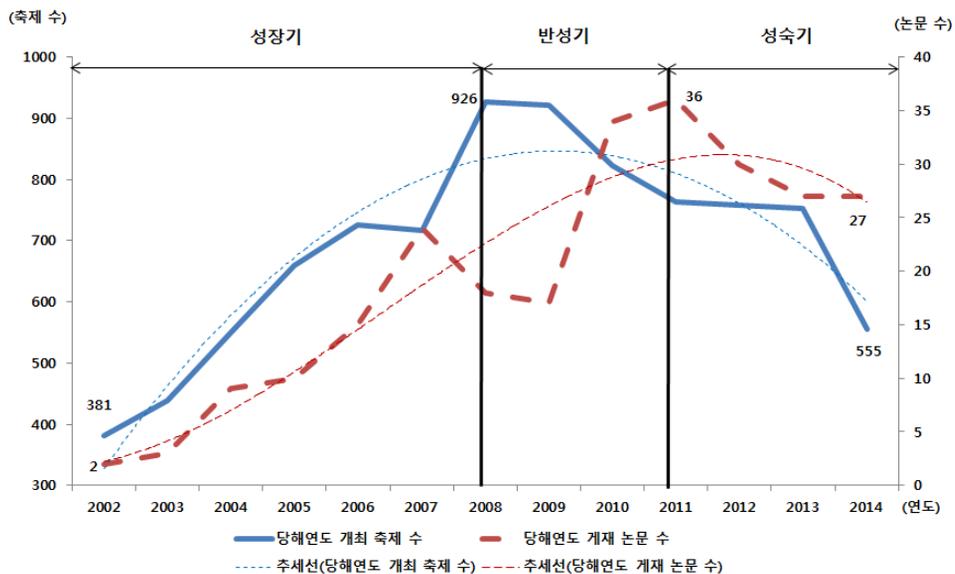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의 문화관광 특징과 활성화 방향”이라는 논문의 경우 첫 번째 기준인 ‘연구 목적’에서는 축제 자체의 분석이나 정책적인 제언 보다는 축제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세부항목 기준에 따라 ‘활성화 방안/마케팅 전략’으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 기준인 ‘축제의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모두 논문의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으로 중복 코딩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분석 수준’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아닌 사회·집단적 차원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집단/사회/지역’으로 코딩하였다. 네 번째 기준인 ‘분과학문’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을 때 해당 논문은 지리학 분야에 해당하며, 다섯 번째 기준인 ‘조사 방법’은 문헌연구로 코딩하였다. 여섯 번째 기준인 ‘자료수집 방법’은 기존문헌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 해당하므로 기존문헌으로 코딩하였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에 대한 분석 항목은 예시 논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코딩하지 않았다.

이 후 네 명의 코더가 합의된 방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코딩을 한 이후 약 40%에 해당하는 100편의 논문을 무작위 추출하여 다시 네 명의 코더가 함께 코딩 결과를 확인하는 결과를 거쳤으며, 개별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분석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의 논문도 별도로 논의하여 최종값을 코딩하였다.

IV. 연구경향성 분석 결과

1. 한국 지역축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성장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기준인 ‘연구 목적’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지역축제의 성장과 학문적 연구의 성장 속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나는데 지역축제라는 사회적 현상과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90년대 지방자치부활 시기부터 2008년까지를 ‘성장기’,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반성기’, 2012년부터는 ‘성숙기’라고 구분할 수 있다⁷⁾.



<그림 1> 한국 지역축제의 성장과 학문적 관심의 추동

7) 이훈·김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축제를 문화관광축제 제도로 활성화 및 지원하면서 지역축제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보다 더 참가하는 주민 중심의 놀이성이 강화되어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지역축제의 ‘질적 성장의 고민’ 시기라고까지 표현하였다. 계속된 양적 팽창으로 인한 한계점이 사회적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더해 2009-2010년에는 신종플루 유행, 천안함 사건,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지역축제가 감소하게 되었다. 지역축제는 공공성을 내포하는 그 속성상 사회적 맥락과 함께해 온 것이다(이훈·김미정, 2011: 491-496).

이훈·김미정(2011)의 연구와 본 연구의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대부터 지역축제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난다⁸⁾. 당해연도 개최 축제 수의 추세를 보면 2008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381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는데 2008년에는 926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⁹⁾.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사회과학분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논문의 수도 2002년에는 2편에서 2007년 24편, 2008년 18편으로 증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95년부터 ‘올해의 문화자치단체’ 및 ‘우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만들고 평가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적 팽창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축제 등의 이벤트를 통한 지역마케팅, 관광산업에도 외부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축제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축제의 유희성, 놀이성이 증대되었다(이훈·김미정, 2011: 490-494). 학문적 접근은 <그림 2>와 같이 현황에 대한 진단이 연구 질문인 경우가 많았다. 주로 축제 방문자, 축제 프로그램 구성 등 축제 구성 요소를 분석에 연구의 의의를 두는 논문이 다수였다.

지역축제의 양적 팽창은 2008년에 정점을 찍고 2009년부터 감소에 돌입하게 된다. 신규 개설된 축제들이 이미 선도적인 축제들을 모방하거나¹⁰⁾ 몇몇 지역들 간의 축제 장소성과 주

8) 본 연구에서 연구경향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학술정보 검색엔진과 학술논문이 2002년~2014년이기에 지역축제 현황도 2002년부터 비교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발표한 지역축제 통계에 근거하여 2002-2005년 지역축제 수를 추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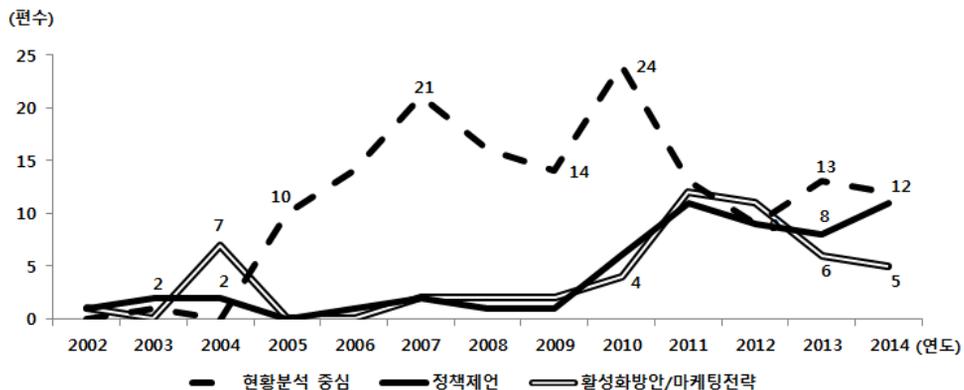
<한국 지역축제 개최 현황: 2002-2014년>

연도	당해연도 신규 개설 축제 수	당해연도 개최 축제	
		축제 수	전년대비 증감율
2002	57	381	
2003	111	438	15.0%
2004	124	549	25.3%
2005	110	659	20.0%
2006	91	726	10.2%
2007	126	716	-1.4%
2008	115	926	29.3%
2009	47	921	-0.5%
2010	12	823	-10.6%
2011	-60	763	-7.3%
2012	-5	758	-0.7%
2013	-6	752	-0.8%
2014	-197	555	-26.2%

9) 2002년의 수치는 200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역축제 자료에서 개별 축제의 최초 개최연도를 추적하여 통합 추정한 것이며 2006년부터의 수치는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수치와 동일하다.

제성이 유사해지는 경우(윤주철·문광민, 2011), 지역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의 내적 부실이 빈번한 경우 등이 지적되기 시작한다¹¹⁾. 즉, 사회적으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 담론(이훈·김미정, 2011: 494)”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축제 절감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면 지방교부세를 특별 배정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축제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이훈·김미정, 2011: 495). 지역축제라는 사회적 현상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은 팽창한다.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는데 <그림 2>와 같이 내용적으로 전환이 생긴 것이다. 이전의 시대에 현황 진단이 주요 연구 질문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정책적 제언, 전략적 마케팅 방안, 활성화 전략 등 문제의 처방 비중이 강화된 논문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 감축과 통합관리의 중요성은 2014년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무래도 지역축제라는 사회적 현상이 양적으로 감소하다보니 관련 학술연구도 약간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당해연도 게재 논문 수의 추세를 보면 2011-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에는 34편, 2011년에는 36편, 2012년에는 30편,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7편의 논문이 사회과학분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학문적 관심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지역축제 성장기보다 연간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많으며 2007년(24편) 즈음과 비슷한 양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림 2> 지역축제의 연구 목적

10) 경향신문. 2009. 10. 5. “뉘시체험·요리대회·노래자랑... ‘무슨 축제였더라.’”

11) 헤럴드 경제. 2011. 4. 15. “지역축제 800여개... 전시행정에 혈세가 샌다.”, 강원일보. 2011. 9. 8. “선택과 집중’ 절실한 지자체의 축제 지원”

〈그림 2〉를 통해 지역축제 관련 연구의 의의를 부가적으로 살펴보면, 252편의 논문 중 147편(약 58%)이 현황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였으며 현황 분석 후 비교적 정책적 제언과 마케팅 전략을 비중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논문이 105편(42%)이었다. 시간적 추이를 살펴 보았을 때, 2010년까지는 현황분석 중심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 지역축제의 구조조정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는 처방 중심의 연구가 다수 등장하게 되어 2013년 즈음부터는 현상 진단과 처방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지역축제의 의의와 분석수준

앞서 살펴본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지역축제의 의의가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된 분석기준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축제 의의’에 대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기능은 생산과 소비를 통한 ‘상품화’로 설명되며, 사회적 기능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의 재현, 경험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화’로 설명된다. 지역축제의 공간적 확산, 연구 메타분석을 수행한 논문을 제외한 24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가치창출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는 90편(37.2%), 사회적 의미형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94편(38.8%), 지역축제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를 고려한 논문은 58편(24%)으로 집계되어 어느 한 쪽의 관점에 치우치지 보다는 두 가지 축제의 의의에 균형 잡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에 대한 학문적 조망

연도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		합계 (편)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2002	0	0.0	1	100.0	0	0.0	1
2003	0	0.0	1	100.0	0	0.0	1
2004	3	50.0	3	50.0	0	0.0	6
2005	4	44.4	3	33.3	2	22.2	9
2006	5	33.3	3	20.0	7	46.7	15
2007	8	33.3	10	41.7	6	25.0	24
2008	4	22.2	5	27.8	9	50.0	18
2009	7	41.2	8	47.1	2	11.8	17
2010	19	55.9	11	32.4	4	11.8	34
2011	9	0.0	22	61.1	5	38.9	36
2012	14	46.7	11	36.7	5	16.7	30
2013	6	25.0	6	25.0	12	50.0	24
2014	11	40.7	10	37.0	6	22.2	27
합계	90	37.2	94	38.8	58	24.0	242

〈표 6〉과 같이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았을 때, 연도별 특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기간을 '성장기(2002-2008),' '반성기(2009-2011),' '성숙기(2012-2014)'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시간적 흐름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축제의 성장기에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지역축제의 의의가 비교적 균등하게 반영된 반면, 지역축제의 반성기에는 사회적 의미형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지역축제의 성숙기에는 오히려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지역축제의 의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시기별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

시기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		합계 (편)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성장기 (2002-2008)	24	32.4	26	35.1	24	32.4	74
반성기 (2009-2011)	35	40.2	41	47.1	11	12.6	87
성숙기 (2012-2014)	31	38.2	27	33.3	23	28.4	81

이를 각 학문분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지난 2002년에서 2014년 사이 다수의 논문이 게재된 관광학, 지리학, 행정학/정책학, 경영/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영/경제학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약 44% 이상의 논문들이 축제의 사회적 의미형성 관점에서 분석되었고 관광학 분야의 축제 연구는 약 43%가 사회적 의미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경우,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적 접근이 각각 33.3%로 나타나 매우 균형 잡힌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표 7〉 학문분과별 지역축제 의의

세부학문분과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		총계 (편)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관광	41	36.3%	49	43.4%	23	20.4%	113
사회과학	3	75.0%	1	25.0%	0	0.0%	4
지리	10	27.8%	16	44.4%	10	27.8%	36
행정/정책	11	33.3%	11	33.3%	11	33.3%	33

세부학문분과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적 의미형성		혼합		총계 (편)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무역	1	33.3%	0	0.0%	2	66.7%	3
경영경제	20	44.4%	16	35.6%	9	20.0%	45
사회학/신문방송	2	50.0%	0	0.0%	2	50.0%	4
교육	2	50.0%	1	25.0%	1	25.0%	4
총계	90	37.2%	94	38.9%	58	24.0%	242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와 사뭇 다른 결과이다. 예를 들어, 부소영(2003)의 연구에서는 관광학 분야의 지역축제 연구가 주로 관광 및 상업적 효과를 강조하였다고 분석되었다. 홍성화·최병길·이성은(2006)의 연구도 관광학 분야 학술논문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마케팅 관점이 부족하고 문화적 접근에 그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와 달리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축제의 두가지 의의가 균형있게 조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아도 그러하다.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을 강조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제/경영학 분야의 논문에서도 약 48.8%의 연구가 사회적 의미형성 기능을 추적하였으며 경제적 가치창출 측면에 비중을 크게 둔 연구는 33.3%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역축제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증가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는 지역축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형성 기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에 비중을 둔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김창수·김형빈(2014)의 연구에서는 3년간 무주만들꽃 축제 방문객들의 성향에 따라 지역축제 방문시 소비행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방문객 성향은 참여횟수, 동행수, 참여일수, 교통수단에 더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소비지출액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등을 산입하였다. 분석결과, 연도별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하나 3년 통계치로 보면 축제장 참여일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역 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려면 방문객의 잦은 방문 또는 체류일수를 증대시킬만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2014)의 연구에서는 안동 국제탈춤축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광 및 경영학에서 자주 분석되는 서브퀄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동조성 등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두 축제에서 모두 만족도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은 축제관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주변 시설정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식·전영주(2012)의 연구에서는 강진청자축제 방문객을 중심으로 지역축제에 대해 느끼

는 매력성이 높을수록 지역브랜드 자산가치가 향상되고 이것이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실증분석하였다.

사회적 의미형성에 비중을 둔 연구 중 기호학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은 최정윤·이길재(2014)의 연구이다. 이들은 디자인분야의 기호학적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제의 개최 취지와 의미를 공유할수록 지역축제 캐릭터에 이것이 반영되며 캐릭터에 반영된 의미는 지역문화형성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가설설정을 하고 실증분석하였다. 신현식(2014)의 연구에서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반영될만한 문화기호학 의미생성 모델과 스토리텔링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스토리텔링 단계로 대나무라는 문화원형 조사, 콘텐츠의 스토리화, 콘텐츠 스토리의 텔링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화를 구상하였다. 박혜영·김정주(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신뢰와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화석(2014)의 논문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거버넌스 유형을 비교하였다. 공무원, 축제추진위원회, 전문가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였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005년까지는 관 주도형 거버넌스였으나 2006년부터 축제조직위가 설립됨에 따라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구조를 거쳐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지방정부가 모든 축제 기획 단계에 개입되어 있는 관주도형 거버넌스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세 번째 분석기준에 해당하는 '분석 수준'과 네 번째 분석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학문'을 종합하여 분류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지역축제 연구가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축제의 두 가지 의의 중 어느 차원을 더 비중있게 다루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논문의 분석수준과도 연계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와 같이 개인을 분석수준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해당 지역 전체가 어떠한 문화를 창출하고 행위자 네트워크를 갖는가에 관심을 두는 집단적 수준의 연구가 있다. 두 분석수준을 모두 반영한 논문을 중복 계상하였을 때 총 254편의 논문 중 195편(76.8%)이 지역주민, 축제 방문객과 같은 개인적 수준을 분석단위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지역사회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는 59편(23.2%)에 그쳤다.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가 각각 50%와 0%를 차지하는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다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지역축제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30편 논문 중 28편(93.3%)이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한 논문이었다. <표 8>과 같이 분석수준이 분과학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관광, 사회과학, 행정/정책, 무역, 경제/경영 부문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한 논문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관광학 분야의 경우 87.2%가 개인 수준에서의 연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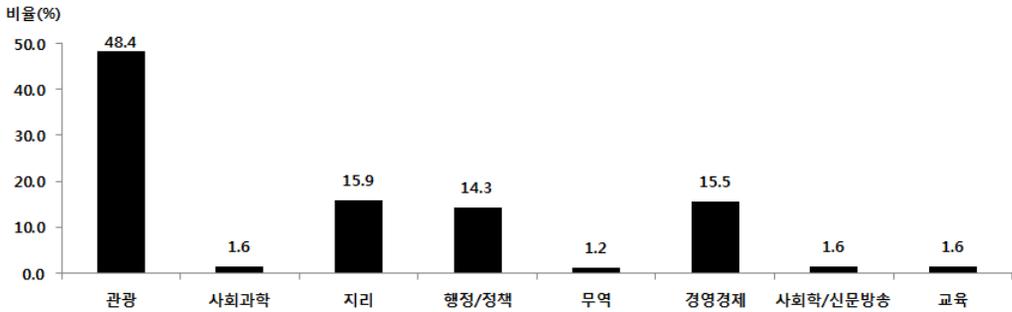
〈표 8〉 분과학문별 분석수준 비교(%)

분석수준	행정/정책	관광	경영/경제	무역	사회학/신문방송	지리	교육	사회과학
개인	70.6	87.2	84.2	66.7	50.0	47.5	50.0	100
집단사회	29.4	12.8	15.8	33.3	50.0	52.5	50.0	0

3. 지역축제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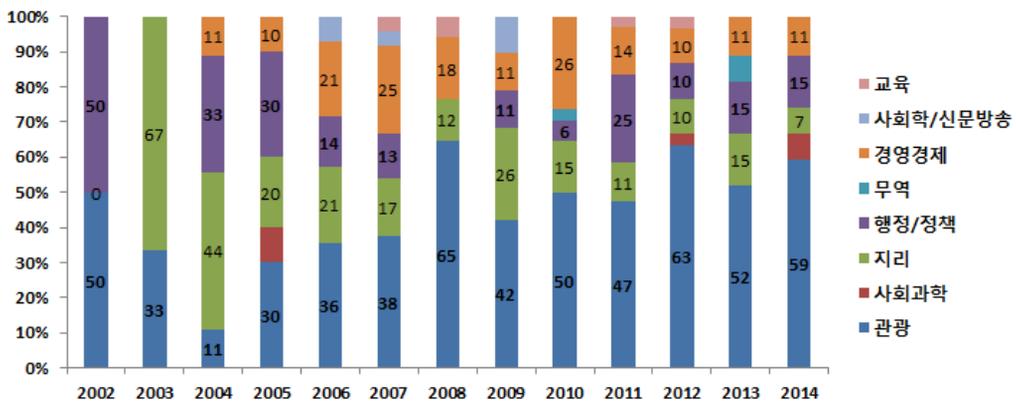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경향성 분석결과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분석하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제 지역축제 관련 논문을 내용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법론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¹²⁾. 먼저 사회과학분야의 252편 논문의 분과학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48.4%인 122편의 논문이 관광분야에서 출판되었다. 다음으로는 지리학, 지역개발, 지역학, 기타지리학을 포함하는 지리부문에 출판된 논문으로 총 40편의 논문이 작성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15.9%를 차지한다. 경제경영부문은 총 39편의 논문이 작성되어, 전체의 15.5%를 차지하였으며, 행정/정책학분야는 36편으로 14.3%를 차지하였다. 행정/정책학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학 분야 21편, 정책학분야 7편, 도시/지방행정 3편, 행정사 1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네 분과학문의 논문이 총 237편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였다. 기타학문분야로는 사회과학, 무역학, 사회학/신문방송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지역축제관련 논문이 출판되었다.

12) 지역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주제의 연구경향성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준이다.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 경향성을 분석한 목진휴·박순애(2002), 최영출·박수정(2011)의 연구, 지방자치 및 지방정부 연구경향성을 분석한 연구(이병렬·박기관, 2002; 이종수, 2008; 최호택·정석환, 2011; 이승철, 2013; 김미현·최현덕·정명은, 2015)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여성정책(나태준·정장훈, 2006; 김학실, 2012) 등 정책분야별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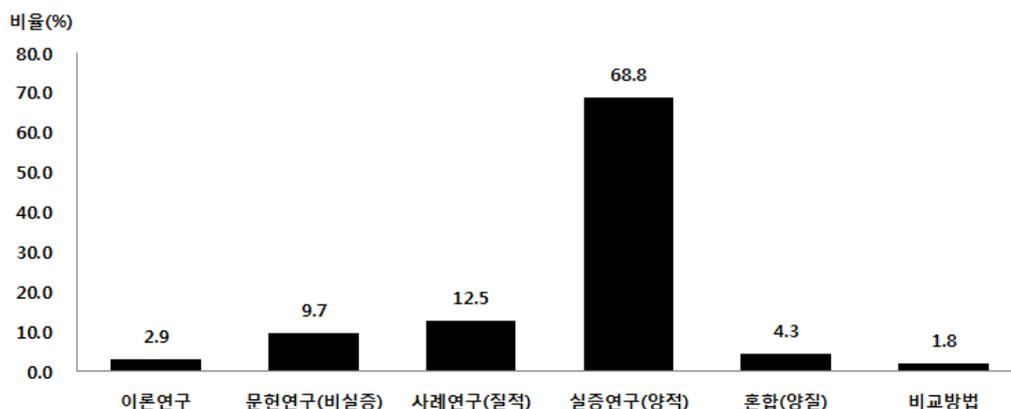
<그림 3> 분과학문별 축제연구 비중

분과학문별 연구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초반, 즉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관광학, 지리학, 행정/정책학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씩 이루어졌다. 특히 동기간 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이후에는 관광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2012년, 2014년에는 약 60% 정도의 논문이 관광학 분야에서 출판된 반면, 동 기간 무역학 분야와 사회학/신문방송학 분야에서는 단 한편의 논문도 출판되지 않았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의 학문적 편재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림 4> 연도에 따른 분과학문별 축제연구

본 연구의 다섯 번째 분석 기준에 해당하는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방법론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이론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 혼합방법, 비교방법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6가지 범주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서 중복하여 합계를 산출하였다. 총 252개 논문 중에서 6가지 분석방법중 한 가지 방법을 쓴 논문의 수는 226개였으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26개였다. 이 중 3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단 1개였다. 결과적으로 총 279개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증연구(양적)가 총 192회 사용되어 68.8%를 차지하였으며, 사례연구가 총 35회 사용되어 12.5%, 문헌연구가 27회로 9.7%를 차지하였다. 실증연구와 사례연구가 전체의 81.3%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4가지 분석방법은 20% 이하가 사용됨을 보여준다.



<그림 5> 지역축제의 연구방법론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여섯 번째 분석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자료, 관찰, 기존문헌(신문, 보고서)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9>에 의하면 252개의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중복사용을 포함하여 총 304건으로 한 논문당 약 1.2개의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총 190회, 62.5%)였다. 다음으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조사가 54회(17.8%) 사용되었으며, 통계자료 30회(9.9%), 인터뷰와 관찰이 각각 15회(4.9%)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자료수집방법에도 편향성이 존재하였다. 지역축제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된 4개의 분과학문 중 관광학분야와 경제경영분야의 경우, 70%가 넘는 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반면, 지리학분야와 행정/정책학분야의 경우, 설문조사가 가장 많

이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존문헌을 통한 자료수집 역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리학분야의 경우, 약 32%의 연구가 기존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9> 분과학문별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 방법	합계		행정/정책		관광		경영/경제		무역		사회학/신문방송학		지리		교육		사회과학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설문 조사	190	62.5	21	42.9	107	78.7	31	70.5	2	50	3	50	19	33.3	3	75	4	100
인터뷰	15	4.9	5	10.2	6	4.4	0	0.0	0	0	1	16.7	3	5.3	0	0	0	0
통계 자료	30	9.9	8	16.3	7	5.1	5	11.4	1	25	0	0.0	9	15.8	0	0	0	0
관찰	15	4.9	2	4.1	3	2.2	1	2.3	0	0	1	16.7	8	14.0	0	0	0	0
기존 문헌	54	17.8	13	26.5	13	9.6	7	15.9	1	25	1	16.7	18	31.6	1	25	0	0
중복 합계	304	100	49	100	136	100	44	100	4	100	6	100	57	100	4	100	4	100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한 경우, 설문조사의 대상에 따라 공무원, 주민, 방문객, 전문가, NGO, 기타 등 총 6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사용한 연구(총 235) 중 대부분의 연구(174)인 74%가 축제방문객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경우는 26회(11.1%)에 불과하였으며, 공무원 14회, 전문가 11회, 기타 7회, NGO 3회를 차지하였다. 이는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만족도,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축제의 수용자가 아닌 축제 사업 관리자나 정책 설계 및 집행자의 입장에서 축제에 대한 연구·분석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대상의 경우, 분과학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설문조사 대상은 축제방문객이었다.

V.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지역축제의 성장과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역축

제의 연구경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방법론, 자료수집방법 등 연구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지역축제의 분석 기준을 협소하게 해석한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경향이 지역축제의 통시적 변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고려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가 축제의 근본적인 의미, 즉 축제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의미형성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 중 어떠한 것에 착목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과학문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가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축제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단일 분과학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사회과학분야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각 분과학문별로 지역축제 연구의 특징이 어떻게 상이한가를 살펴보았다. 분과학문별 특징은 분석수준, 연구방법론, 자료수집방법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5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연구설계 전략은 특정 1-2개 지역축제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형식이었다. 연구경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의미형성 차원에서 축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축제를 둘러싼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기억과 공유, 그리고 이것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적, 집단적, 공동체적 의미의 형성과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규범적 차원에 머물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의미형성 기체로서의 지역축제가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의 기억을 재현하며, 이러한 기억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공유되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의 다양화와 시계열적 조사관찰 연구의 필요성이다. 그동안 단일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단년도에 기반을 둔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전략이 보편적이었으나 향후 두 가지 이상의 지역축제 간 비교와 이들 간의 시계열적 비교 연구는 지역축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역축제 연구들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몇 가지 주요 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대부분 유사한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축제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새로운 축제 사례를 발굴하고, 통폐합 또는 중단된 축제나 수익성 등의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패 사례를 통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연구의 분석단위는 축제 참가자나 지역주민 등 개인단위에서 수요자 관점의 참여 동기나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축제 관련 정책의 설계자, 집행자 및 관리자 등 공급자 측면의 시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파악하고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책임 있는 지역축제

운영 및 개척을 위한 전략, 축제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자 시각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수요자 중심의 연구 편향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 및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축제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축제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은 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더불어 내용분석,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통해 지역축제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로 진행된 소수의 사례 연구도 주로 단일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두 가지 이상의 축제 사례에 대한 비교나 축제 간 아이템 비교, 국내외 축제 간 비교 등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지역축제의 사회적 의미형성에 대하여 논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축제가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고 재구성하며 때로는 이를 어떻게 해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문화콘텐츠화 하는가에 대한 연구, 스토리텔링 기법 비교연구, 지역 특유의 사회적 의미창출 방식에 대한 연구, 정형화된 지역축제가 지역성을 어떻게 탈각시키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가 인문학 혹은 예술학 분야 등의 논문들은 제외하고, 사회과학 분야 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드러나는 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이외에 인문학이나 예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와의 교차점을 확인하는 작업은 추후 이어질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역축제 연구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 확산의 매개와 정책학습, 전수의 공간으로서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 지역축제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축제를 둘러싼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형성과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의 국제화전략을 통한 지방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경쟁력 강화, 축제를 통한 해외자매 결연, 해외 지역축제와의 공동개최 모색 등 지방정부 세계화와 지역축제 간 상관관계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축제 연구의 정형화 추세는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축제가 지역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브랜드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지역축제가 유사하게 변화하는 현상과 같이 연구경향성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정형화를 탈피함으로써 축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듯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정형화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 다년간에 걸친 축제 기능과 효과의 변화, 국내외 축제 간 비교연구, 축제의 콘텐츠에 관한 연구, 축제를 둘러싼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 등은 지역축제 연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미현·최현덕·정명은. (2015). 정부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93-114.
- 김성태. (2014).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관광거버넌스 형성요인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인천 소래포구축제의 이해집단을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8(5): 17-32.
- 김진완. (2014). 지역축제 환경단서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축제 태도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4 은평누리축제를 사례로. 『관광경영연구』, 62: 167-190.
- 김창규. (2014).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법과 정책연구』, 14(2): 551-571.
- 김창수·김형빈. (2014). 지역축제 방문객 성향과 소비지출과의 관계 연구: 최근 3년 무주반딧불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회』, 59: 1-19.
- 김창수·전대희. (2007). 지역축제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평가 비교분석. 『관광연구』, 22(2): 265-284.
- 김학실. (2012). 여성정책변동과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2): 241-264.
- 김현욱. (2014).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과 만족도 분석에 따른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7(1): 171-191.
- 김현호·조순철. (2004). 축제마케팅과 지역발전-함평나비축제의 특성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4): 209-232.
- 나태준·정장훈. (2006). 싸구려 뷔페식탁?: 2000년대 중반 환경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0(4): 419-447.
- 남덕현. (2004). 축제와 문화적 정체성. 『독일언어문학』, 26: 199-215.
- 김효경·류시영. (2012). 지역축제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영향요인-수원화성문화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6(5): 233-246.
- 류준호·윤승금·이영주. (2010).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언론과학연구』, 10(1): 124-165.
-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1(1): 319-332.
- 박건실. (2004).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17(4): 1171-1194.
- 박혜영·김정주. (2012).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47-66.
- 부소영. (2003). 축제의 지역이미지에 대한 영향관련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28(2): 113-132.

- 송학준·최영준·이충기. (2011). 4Es 이론에 따른 축제 방문객의 충성도 연구. 『관광연구』, 25(6): 179-198.
- 신동식. (2013). 지역축제 체험 가치가 지역 브랜드 자산 및 지역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14(2): 99-124.
- 신현식. (2014). 지역축제에서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 연구: 평창송어축제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55: 90-108.
- 신현식·전영주. (2012). 지역축제 매력성이 지역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진청자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6(3): 179-197.
- 유예경·정승환. (2013). 스마트폰기반 관광정보품질요인과 불만족요인 및 후속행동간의 관계분석. 『e-비즈니스연구』, 14(3): 55-74.
- 윤주철·문광민. (2012). 지역축제의 상호모방과 경쟁회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 69-91.
- 윤태일·정영구·송현주. (2012). 신명나는 일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춘천마임축제 자원봉사자의 사례를 통해 본 '신명감정 관리모형'탐색. 『홍보학연구』, 16(1): 112-147.
- 이병렬·박기관. (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3-42.
- 이승길·김현·유창근. (2013). 지역축제 방문객의 지출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15(4): 177-187.
- 이승철. (2013).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55-78.
- 이재달·류정섭. (2014). 지역축제 방문객 충성도의 계량적 중단연구: 개천예술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제지역연구』, 18(4): 321-340.
- 이정록. (2011).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축제와 이벤트의 지리학: 한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학회지』, 14(2): 99-115.
- 이종수. (2008). 지방자치 현상과 이론의 변증과정: 비교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2(2): 31-48.
- 이환범·송건섭. (2002). 서브퀄(SERVQUAL) 요인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 평가. 『한국행정학보』, 36(3): 249-268.
- 이훈. (2006). 축제체험의 개념적 구성모형. 『관광학연구』, 30(1): 29-46.
- 이훈·김미정. (2011). 한국 축제사: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10): 481-499.
- 장서연·김영국. (2014). 지역 커뮤니티와 DMO의 관광목적지 브랜딩 전략: 하이! 서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3(5): 119-133.
- 전대희·김창수. (2010). 지역축제의 핵심프로그램 가치가 고객기반 축제 브랜드자산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연구』, 25(5): 349-373.
- 전명숙·김근중. (2011).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요소 분석: 2010 세계대백제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0(4): 87-95.
- 조선배·진재수·현성협. (2012). 지역축제의 매력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7(1): 333-353.

- 조승현. (2013).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215-236.
- 지용승·홍준현. (2014). 축제품질 인식이 지방정부: 시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59-86.
- 채예병·공운주·김형식. (2011). 지역축제 참여동기와 만족 및 충성도에 관한 연구: 2011 함평나비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5): 161-176.
- 최영준·박대환. (2008). 지역문화관광축제의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주체역할과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3): 125-144.
- 최영출·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최정운·이결재. (2014). 축제개최취지와 캐릭터표현의 의미전달이 지역문화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8(9): 97-109.
- 최호택·정석환. (2011). 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5-23.
- 홍성화·최병길·이성은. (2006). 국내 관광분야 축제 이벤트 연구논문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30(6): 95-111.
- 황설화·이영미·이병량. (2014). 지역축제 참여자들 간 협력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 57-84.
- 황종규·엄홍석·이명숙. (2005). 지역축제 방문자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풍기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2): 313-337.
- 황화석. (2014). 지역축제 유형별 거버넌스 특성 비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문경전통찻사발 축제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8(3): 299-314.
- 강원일보. (2011. 9. 8). “선택과집중’ 절실한 지자체의 축제지원”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1090700052>
- 경향신문. (2009. 10. 5). “낯시체험·요리대회·노래자랑...’무슨축제였더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51715305&code=210000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https://www.kci.go.kr>
- 헤럴드경제. (2011. 4. 15). “지역축제 800여개...전시행정에 혈세가 샌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415000405&md=20120422161324_BL

김 미 현: 연세대학교에서 “조직 내 저(低)성과자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중심으로(2013)”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정부, 제도주의 조직론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4)”, “지방의회 의정비와 생산성의 관계 분석: 정책건제와 입법기능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서울도시연구, 2014)”, “조직 내 저성과자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2)” 등이 있다.

정 명 은: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지방정부 개방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11)”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 Plus 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정부, 제도주의 조직론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4)”, “주민참여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한국정책학회보, 2013)”,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한국행정학보, 2012)”,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한국행정학보, 2012)” 등이 있다.

태 지 호: 서강대학교에서 “영상 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2012)”로 영상매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 안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기억 문화 연구, 문화콘텐츠, 대중문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문화적 기억으로서 ‘향수 영화’가 제시하는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2013)”,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의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 재구성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한국언론정보학보, 2012)” 등이 있다.

정 현 주: 2008년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Reassessing Reform Outcomes in South Korea and Japan A Decade after Crisis>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기억의 정치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Who Invest in North Korea? Chinese FDI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The Pacific Review, forthcoming)”,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의 기억과 정치적 함의(한국정치학회보, 2014)”, “한국 ODA의 구속성 여부에 관한 경험적 분석(행정논총, 2014)”, “Financial Regul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Adapt, Fragment, Transform, 2012)”,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ism in Korea(Asian Survey, 2010)” 등이 있다.